하나가 되는 교회

성경말씀: 엡4:1-6

배경

오늘 정식으로 교회를 창립한다. 교회를 창립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가?
지난 몇 주 동안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앞으로 교회를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이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교회 ★★★

하나님의 부르심(1절)

1절: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간청한다. 옥중서신,
'그러므로'의 내용: (1) 죄들과 범법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2:1). (2) 선한 행위를 하게 하셨다(2:10). (3) 예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이제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2:12). (4)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동료 상속자가 되었다(3:6). (5)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3:10-11). (6)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신다(3:20).
그러므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대단히 중대한 일이다. 알고 있는가? ★★★
Vocation=calling, 초청장을 받았다.
결혼식, 회갑잔치, 취임식 등에 초대를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교회로 초청을 받았다.
누가 초청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초청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마음과 뜻과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다.
당신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는가? ★★★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두를 부르신다고 말한다(요1:9). 여기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1)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해, 하나님의 마음의 전달, 성령님의 역사
(2)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병, 아픔, 고통, 다른 사람의 죽음
(3) 대화를 통해서, (4) 독서를 통해서, (5) 성령님의 개별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초청을 받아 교회라고 하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으면 합당하게 걸어야 한다.
(1)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야 한다.
(2)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가 행한 것처럼 행하여야 한다.
(3) 도덕과 윤리에서도 항상 바른 것을 추구해야 한다.
(4)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걷는가(2절)

1. 모든 겸손으로: all lowliness, 자기를 낮춘다. 겸손하다고 생각하면 이미 겸손하지 않다.
사도 바울의 예(행20:19), 특히 목사와 집사들의 경우 이것을 지켜야 교회가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예수님 먼저, 다른 사람 그 다음, 그리고 나(JOY)
2. 온유로: 이것은 우유부단이 아니다. 온유는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힐 때에 우리의 태도이다.
교회에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용서하는 마음으로 받자.
3. 오래 참음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우리를 화나게 할 때, 우리가 바른 교회를 하려면 이것이 필수적이다. 성경의 모든 리더들은 이런 덕목을 갖추었다.
이웃과 이웃, 친구와 친구, 가족과 가족, 성도와 성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
살면서 인생의 쓰라림은 오게 마련이다. 이것을 증폭시키면 문제가 생긴다.
문제없는 교회, 가정은 없다. ★★★ 이것을 오래 참음으로 극복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으면 더욱 더 그리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유창한 말, 뛰어난 재능, 엄청난 행적이 아니다. ★★★
교회와 인생의 행복은 잔잔한 데 있다. 나이아가라 폭포와 잔잔한 시내 비교 ★★★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킨다(3절)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모두 하나님의 인격체들이다. 이런 다양성을 조화시키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획일화, 군대 식으로 생각의 자유를 없애고 외적 압력으로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 대부분의 이단들 근본주의 교회들도 여기에 빠지기 쉽다. ★★★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다양성과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를 이룰 수 있다.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
교회도 다투는가? 그렇다(약3:13-4:10). 예수님의 제자들, 신약성경의 교회들
교회가 다투면 (1) 외부에 덕이 되지 않는다. (2)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화평의 매는 띠로 하나가 되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다.
자식들끼리 싸우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도 같다. ★★★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한다(골3:150).
교회 일을 하면서 싸우면 얼마나 우스운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우리의 위치를 인식하고도 싸우면 얼마나 유치한가?

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하는가?(4-6절)

(1)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다(마16:18). 교단, 교파는 달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몸의 지체이다. 한 몸이면 하나가 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 교회에서 ★★★
(2) 한 성령님: 성령님은 사람에게 죄를 입증하고 회심시킨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동일한 성령님에 의해 영이 살아난 사람이다. 인종, 기질, 교육, 재정, 지위, 성별, 나이가 달라도 모두 한 성령님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바로 그 성령님은 한 마음으로 자기 부인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을 요구한다. ★★★
(3) 한 소망: 우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재림의 소망, 어려움이 있어도 휴거를 바라본다. ★★★
재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이다.
(4) 한 주님: 주인이 한 분이다. 구원자가 한 분이다. 목사가 아니다. 유대인을 위해서도 한 주님, 이방인을 위해서도 한 주님, 미국 사람을 위해서도 한 주님, 한국 사람을 위해서도 한 주님, 목사, 집사, 성도를 위해서도 한 주님, 그래서 화평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
(5) 한 믿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는 주 예수님이다(히12:2).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이들은 한 믿음을 소유한다. 창조, 타락, 이스라엘, 교회, 예수 그리스도(성육신, 대속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심판), 그러므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
(6) 한 침례: 물 침례가 아니다. 이것은 성령 침례를 가리킨다. 누구나 구원받을 때에 성령님 속으로 잠긴다(고전12:13). 모두가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
(7) 한 하나님: 우리는 여러 신을 섬기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 다윗과 엘리야와 다니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바울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
이 분은 모든 것 위에 있고 모든 것 속에 두루 계시며 우리 모두 안에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

결론

1.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하는가?
2.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가 되어 화평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
3. 한 몸, 한 성령님,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이 있을 뿐이다.
4. 바른 정신으로 임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